

### 8년만에 고향 목포 찾은 김대중 前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목포역에서 환영식을 마치고 만찬장인 신안비치호텔로 가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기 전에 환영 나온 시민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PSI 참여 무력제재 전쟁위험 키운다”

팔순을 넘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28일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고향 목포를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부터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 때문에 목포를 거의 찾지 못했다.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1998년 8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 구간 개통식 참석차 한 차례 목포를 방문한 게 전부여서 이번 귀향은 햇수로 8년여 만이다.

김 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목포시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 당사자 모두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귀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계에 김 전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그가 자신의 고향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8년만의 귀향=김 전 대통령은 28일 오후 KTX 편으로 목포에 왔다. 목포는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난 그가 보통학교와 목포상고(현 전남제일고)를 졸업한 뒤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해 청운의 꿈을 키웠던 곳. 또 홍일, 홍업 두 아들을 낳았으며 6,7대 국회의원으로 연거푸 당선시켜 준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 목포역 광장 시민 등 3천여명 몰려 열렬한 환영 정치 불개입 강조 불구 여·야 의원 통합론 주창

김 전 대통령은 목포역에 도착, 환영식장인 역광장에 운집한 3천여명의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DJ를 보자 눈시울이 젖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반세기 정치에 참여하면서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정치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생명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 등 내가 사랑하는 조국, 민족, 고향을 위해서 현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핵문제 해법 제시=김 전 대통령은 이날 환영식에서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한반도 주변에서 실행

시켰다가는 무력대결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직접대화 해법을 재차 강조한 뒤 “한반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세력 통합론 불씨 지퍼=김 전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전남을 방문하는 자체가 정계개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특히 이날 환영식과 환영만찬 등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전남도당위원장인 유선호 의원과 천정배·김원웅·유운근·이상준 의원, 민주당에서 한화갑 대표와 최인기·이낙연·이상열 의원, 체일병 해남·진도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건배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안 계시더라도 이 나라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필요로 함을 웅변하고 있다”며 “(참석자) 모두 김 전 대통령이 꾀던 국정 철학을 똑같이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이제 민주화세력, 양심세력들은 DJ의 국정 철학을 지침으로 연대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만찬장에 있던 한 대표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유 의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상열 의원은 “유 의원의 건배사가 응축적인 발언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당 호남의원 대부분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풀이했다.

## 한나라당의 한계 결국 호남 포기?

“6·15 민족대축전 때의 광주를 해방구였다”라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의 한계는 물론, 그동안 이뤄졌던 ‘호남 겨안기’의 진실성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구도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호남 겨안기에 나섰던 한나라당이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 흐름으로 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호남을 겨냥한 ‘서진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9일까지 김용갑 발언 파문과 관련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언급은 지난 27일 김형오 원내대표가 “김 의원 발언을 발미로 국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는 것 외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집회를 갖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광주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장이 깊어 가는데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말을 아끼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정의화, 원희룡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은 매카시즘적 사고며 이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그동안 호남에 다가가려는 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내 무관심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김용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철저한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설불리 나섰을 경우 ‘여당의 공세’에 말려들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확고한 호남과의 거리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및 호남민심과 햇볕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지도부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서진정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중순 전남지역 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자리에서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당내 반발에 휩싸이자 곧바로 햇볕정책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 핵 실험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여권 주자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 한나라당 지도부가 ‘호남이 없어도 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 핵 실험 이후 호남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 DJ 목포방문 이모저모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일 목포를 방문, 1박 2일 일정으로 다양한 행사를 소화했다. 김 전 대통령은 28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환영식에 참석 후 신안비치호텔에서 환영만찬을 했으며 이어 호텔 대신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관인 ‘어진누리’에서 1박을 했다.

그는 29일에는 오전 10시30분께 전남도청 앞에서 ‘건강과 행복’을 상징하는 30년생 금복서를 기념 식수했으며

이어 전남도청 장보고 전망대에 올라 남양산도시, 대불 산단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이충무공의 ‘無湖南 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었다)라는 글을 적었다.

김 전 대통령은 승용차로 목포 하당지구 내 평화의 광장, 대반동 유달 유원지 등 시내를 둘러본 뒤 이날 오후 KTX 편으로 상경했다.

그는 상경 직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KTX 상경열차의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8년 만에 고향

### 전남도청 전망대 방명록에 ‘無호남 無국가’ ‘목포로 안 나왔으면 신안군의원 됐을 것’

을 방문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됐고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며 “이 고장 출신으로서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얼마나 행복하고 땀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28일 환영행사에서 전남지사, 목포시장 등의 환영사를

들으면서 흐트러진 자세 한번 취하지 않고 가끔 메모를 하는 등 매사에 철두철미한 태도를 또 한번 보여줬다.

그는 또 목포시향의 반주와 시립합창단과 함께 ‘고향의 봄’과 ‘목포의 눈물’을 나지막이 따라 불렀고, 부인 이희호 여사는 ‘목포의 눈물’을 부르던 도중 감

격에 겨운 듯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28일 환영만찬에서 동생의 초등학교 입학 때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일화,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권유로 가족이 목포로 나오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하며 “목포에 안 나왔으면 지금쯤 신안군 의원이 돼 군수 좀 괴롭혔을 것”이라며 “우연이 인생을 얼마나 좌우하는가를 많이 느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행복은 만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환한 웃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11월초 OPEN

도전 병원 세시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고객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1. 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 2. 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 3. 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 4. 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 5. 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 6. 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효인병원**  
HYEONIN HOSPITAL  
111-700-1100  
111-700-1100